

국 제

# 북핵, IAEA 사찰-6자회담 동시 진행

### IAEA 대표단 21일 방북...6자회담 내달 초 유력

### 北 당초 약속 이행시 중유 5만 주내 공급키로

북한 핵협상은 방콕발타이베이(BTA) 문제 해결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감시단 초청을 계기로 IAEA 핵사찰 활동과 북핵 6자 회담을 병행하는 '두트랙'(two track)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몽골 일정을 모두 마치고 18일 베이징을 방문, 중국측 수석대표인 유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 북핵 6자회담 재개 일정을 본격 논의한 뒤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 후속조치를 협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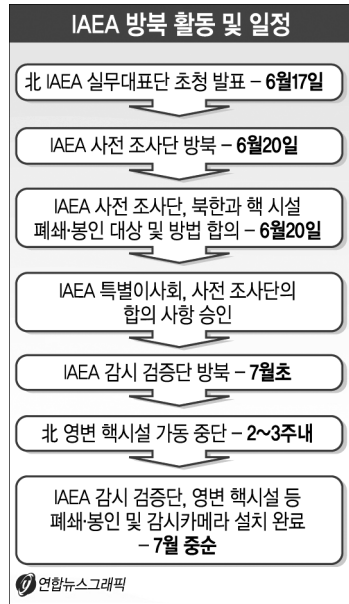
또한 IAEA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실무대표단을 조만간 평양에 파견, 지난 2·13 베이징 합의에 따른 북한의 초기 핵폐기 이행을 위한 세부 검

증 계획 협상을 벌인 뒤 IAEA 특별이 사찰의 승인을 거쳐 정식 핵감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IAEA가 오는 밤(한국시간) 북한에 실무대표단 파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편을 감안할 때 IAEA 실무대표단은 21일께 북한으로 들어갈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IAEA 핵감시단은 향후 2주내에 입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실무대표단에 이어 추후 핵감시단검증단이 본격 방북할 경우 그들의 참관 아래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가동 중단, 폐쇄, 봉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초기 조치와 이에 따른 5자의 상응 조치가 모두 이행



되는데 이르면 2~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중유 5만은 북한이 당초 약속을 이행할 경우 이번 주부터 공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고위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영변원자로는 최근에도 자주

멈춰서는 등 전략적 측면에서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영변 원자로 폐쇄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오히려 그 이후가 더 문제"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를 거론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면서 "특히 북한이 보유중인 핵과 플루토늄 신고 문제를 비롯, 북핵 불능화의 구체적 방법과 북한이 보유중인 핵시설 해체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놓고 접어온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IAEA는 북한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을 검증감시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불마찰을 피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IAEA의 사찰과정이 6자회담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 려하고 있다고 다른 소식통은 말했다.

IAEA는 실무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세부 검증 계획에 합의한 후 IAEA 특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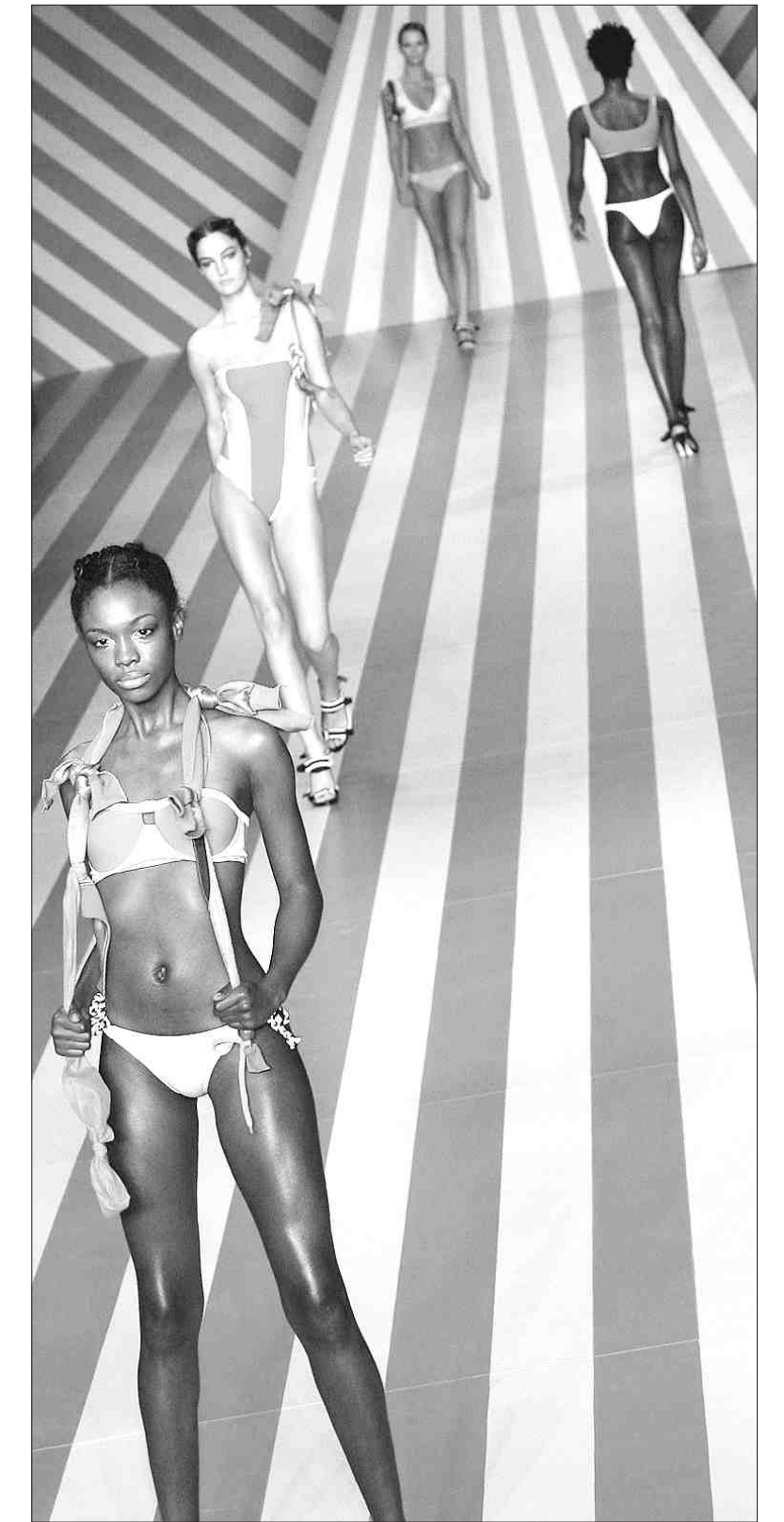
단(감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북핵 6자회담은 내달 초, IAEA는 내달 9일 각각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전망했다.

/워싱턴비블린=연합뉴스

## “北 7월말 영변 핵시설 폐쇄” 리 인터팩스 보도

북한이 다음달 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봉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18일 러시아 인터팩스 베이징 지사가 북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우리측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원자료를 동결시키는데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만큼 6자회담(2·13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는 작업이 7월 하반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7일 상 파울루에서 열린 패션주간 행사 중 모델들이 모버먼트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응웬 밍 쩌엣 베트남 국가주석(오른쪽)이 18일 하노이의 노이바이 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앞서 부인 트란 티 킴 치 여사(가운데)와 딸 자키편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프랑스는 '개혁과 견제' 택했다

### 집권 우파 총선서 압승 못해...간신히 과반 확보

17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에서 집권 우파 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예상했던 압승에는 못 미치며 오히려 기존 의석중 45석을 잃었다.

사회당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집권당에 과도한 권력이 쏠릴 것이라 우려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면하며 의외의 성적을 거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선 승리에 이어 확실한 과반 의석 확보로 예고된 개혁 정책을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회당에 의외의 선전을 안긴 견제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내부부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하원의석 577석 가운데 UMP가 314석을 획득했다. 절대 과반 의석이었던 기존의 의석수 359석



보다는 45석이 줄어든 규모다. 신중도를 포함한 UMP의 제휴 세력이 22석, 다른 군소 우파 정당들도 9석을 각각 차지했다. /파리=연합뉴스

## 베트남 주석 종전 후 첫 방미

### 경제협력 강화 기대

응웬 밍 쩌엣 베트남 주석이 종전 후 32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18일 출국했다.

1975년 베트남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지난해 1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으나 베트남에서는 2005년 판 바키 총리가 첫 미국 방문을 했을 뿐 대외적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인 주석은 32년동안 한반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쩌엣 베트남 주석의 첫 미국 방문이 32년 전 적대국가였던 미국과 베트남이 완전한 맹방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베트남의 중·미(中·美) 등거리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쩌엣 주석은 100여명의 경제인들과 함께 18일 뉴욕을 방문함으로써 6일간의 역사적인 미국 일정을 시작하며 22일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 “무선 USB 1~2개월내 등장”

범용직렬버스(USB) 장치를 통해 개인용컴퓨터(PC)와 연결할 수 있는 주변기기는 키보드나 마우스부터 컵 가열기, 선풍기까지 다양하지만 전선을 통해 PC와 연결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선이 없어진 USB장치들이 PC 사용자들의 시선을 끌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알레레온사(社)는 18일 새 반도체를 이용한 USB제품이 1~2개월 안에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하면 무선 USB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AP=연합뉴스

### “문자 보내듯 계좌 이체 가능”

앞으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방식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하게 됐다고 인터넷서점 해럴드 트리본(IHT)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정보기술(IT) 기업 아남(A-nam)은 ‘혁명적’인 것으로 자체 평가하는 SMS 송금 서비스를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남의 SMS 송금서비스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을 선택, 송금액과 함께 ‘현금’이란 뜻의 영어 단어 ‘cash’를 입력하고 ‘전송(send)’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런던뉴스

## 서울 생활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아

### 모스크바 2년째 1위...런던 2위, 도쿄 4위

서울에 사는 해외주재원의 생활비가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고 일본 도쿄보다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05년 5위에서 2006년 2위로 올랐다가 올해 3위로 한계 단 물러났으나 뉴욕보다 22.4% 생활비가 더 드는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했다.

국제 인력자원 컨설턴트인 머서가, 세계 143개 도시에 사는 외국 주재원들의 소비지출 항목을 비교조사한 결과 서울은 모스크

바, 런던에 이어 세계 3위의 고물가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05년 5위에서 2006년 2위로 올랐다가 올해 3위로 한계 단 물러났으나 뉴욕보다 22.4% 생활비가 더 드는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했다.

모스크바는 뉴욕보다 무려 34.4%나 생활비가 더 들어 2년째 물가가 가장 높은 도시를 유지했고 2위는 런던이었다.

#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 7월 2일 첫전도 개강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 기본서 핵심요약으로 심화과정 이해
-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한 출제 포인트 이해

### 주택관리사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구도림 앞 신일빌딩 7층)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점대점 앞 광주은행 4F)

광양점 ☎ 795-0990 (중앙차량대신점 8층)

## 웰빙시대의 뉴-리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사

### 전국 유일의 실 강의

- 공무원 가산점 3%, 농협중앙회 5%, 지역농협 10%
- 관련업체 자격증 소지자 채용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농림부에서 자금 지원
- 취업처: 농협,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업체 등

-1,2,3회 합격자 90% 이상 취업-

## A+ 현대고시학원

(광주동부경찰서 앞) ☎ 062)236-2467

= '07년 합격이 가장 용이한 전남 교육행정직을 잡아라! =

# 7.9 공무원 대특강

속보 = 전남 9급 교육행정직 을 하반기 시행 =

◎ 채용인원: 000명(약 50명) 이상 필듯, 합격에 절호의 기회! ◎

※ 05년 12월 11일 165명 공채, 1875명 출원, 응시률 9:1 경쟁이었다! ※

= 전남 일반행정직 10월 13일 시험 시행 =

7급 21명·9급 154명(7월초 확정공고)

개강 7월 2일 주야반모집 (현재 예약 접수중)

= 無等은 선배 公務員들이 입증하는 높은 합격률이 있습니다. =

www.mdgosi.co.kr ☎ 222-4560

##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찜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판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필름은 필름난방은 단일 사용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이세요. 티저품 열선대신 탄소면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 (062)262-0101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 이름방학 7.9 공무원 대특강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원직, 경찰직, 사회복지, 군무원, 교정직, 농림직, 전신직, 보건직, 출입관리직, 기술직

이론반 (2개월연성) 7급 문제풀이 (1개월연성)

농업직 양승훈 교수팀 = 필미합격반 = 서울시 7월 8일 시험장 차명예약

기간: 5월 1일 - 7월 31일까지 / 운영료: 총액 2만원

##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7월 2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 234-0234 (전직종 첫전도 = 사전예약접수중)